

海岸의夕陽

李 秉 穆

저녁하늘의 바다에는

白雪같은흰모래 깔니었는대

그우로러버려버려 거리가는한사람

너의갈곳이 그어데머러나?

× × × × × ×

水平線저—곳에 紫紅色노을이

아실아실 춤추는가온대로

풍실떠가는 一葉扁舟여!

아—너는장차 어데로가려나?

× × × × × ×

곳없이저어라 未知의나라로

永遠이절퍼잇는 푸른하늘아래로

곳없이곳없이 흘러가면서

이처럼노래나 불너불가나

× × × × × ×

기초른世上에 알미운虛偽야

羊의웃입은 이리가사는곳

나는버서나 머—리리가오나

이世上에살사람 누구이렘가?

二九五五·九·十三日

죽임의사랑

舟

황망히그이름 끼여안고

가많이그일팔 들여다보았다

사랑이여 苦痛에서드른사랑이여

나의품에서 너는깨어나거라

우리도밝은빛 엇기爲하야

가장구나 사랑이여 가장구나
볼수져어다 엇더케많이들
天上으로날너가는가를

황망히그이름 끼여안고
죽임을가상에풀었다
그이는永遠히잠들었네
또다시그눈을뜨지못한다。

네 불꽃들

化 竹

당신과내가天使王國에살는대

흰모래깔닌시내가에서

빨가버슨빨가송이로작란치면서

이리뛰고저리뛰며안고써러지든

그러케도조흔넛은넛들이

아—이제는피도변하였소구려?

아—이제는왜그리쓸쓸한가요?

당신과내가天眞스릴때

떨에하얀꽃피고山에벽곡새울면

부리진쇠로막칼을가지고

오손도손속살거리며

흙을흙이며나불을캐든

그조흔넛들이이무슨짚일가!!

당신과내가어렸을때에
九月微風이山허리에감돌면
대바구니돌고방주러다니며
맘대로노래하고춤추든
그러케도조흔넛은넛들이

당신과나의한아인노리력이오
당신과나의한아인복음자리든
그러케도조흔넛은넛들이

적적하게 드러선 보루라습
호로든 빛을 조차 말나 버리고

江邊에서 X를 생각하며

꽃이 늘든 달 신도 없어졌으니
大지를 적시는 이 눈물 잊지 해!!!
— 내 눈물 白沙를 닮고 —

부드러운 바람은 술술

바다 저 변에서 부러 오고요

十五夜 밝은 달은

소리없이 우슬 우슬한다.

X X X X X

하늘가에 직은 별들은

神秘로이 속삭이 고요

물안배 매치인이 술은

반짝 반짝 微笑합니다.

X X X X X

바다 끝은 술렁 술렁 노매 부르고

물안은 반짝 반짝 우슬 우슬하고요

水晶비 하늘에 달 우슬 우슬전만

잊지 할인 지나의 마음서 러워다.

春 波

X X X X X

친구여! 님이여!

나는 이와 같치서 러하진만

너는 홀로 푸엿에 취하였는가

우슬 우슬 달이나 하고 오려 부나.

X X X X X

밝은 달은 고요히 술속에 떠러져

외엿은 술을 논리고 있으니

그대여 나와 함께 술속에 드러가

抱擁의香氣 새어나 잠드려봐?
二九五五〇九〇十四日

白 鷗

푸르고 맑은 물결

하늘이 강이인 듯

하얀 모래언덕

紅 流 洞

紅流青山 김촌곳에

바랑동에 지고드니

千佛은 白雲이요

公

三更 밝은 노두와

한 잠일 올제

보이는 것은

黃 性 敏

쓰다시 千里로다

여기서 갈매기 떼들

漁夫노래 조라네

박 가 는 중

牛頭는 萬整이라

이곳이 佛陀伽藍니

四弘誓願 發할수가

金 龍 鶴

벗님뿐이라

그님 손 꼭 잡고선

저나라 갔네